

한국교육원에 보내는 편지

한국교육원에서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듣게 해주셔서
감사합니다. 저는 1-1반 학생이고 나이는 61세, 그리고
저는 고려인입니다. 오래전부터 제 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싶었고
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.

우리 선생님께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
일일이 모든 걸 알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
싶습니다. 수업은 정말 이해하기 편하고 재미있습니다.

전 손주가 4명 있습니다. 아이들이 어렸을
때부터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
노력하겠습니다.

김화자 드림